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예산 2년 연속 감소

1조2324억원→1조2281억원→1조2215억원으로 17개 기관 중 10곳... 지역인재 채용도 7.4% 줄어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역발전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개 기관 가운데 10곳은 지난해보다 지역발전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17개 혁신도시 기관의 올해 광주·전남지역발전 사업비는 1조2215억원으로 지난해 사업비(1조2281억)에 비해 66억원 감소했다. 이들 기관의 지역발전예산은 1조2324억원(2018년)→1조2281억원(2019년)→1조2215억원(2020년)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는 추세다. 특히 17개 기관의 절반 넘는 10곳은 지역발전계획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관련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의 예산(4조984억)을 집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지역발전예산으로 327억 42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역발전계획 추진 실적 금액인 448억3500만원 보다 121억원 모자란 액수로, 전년도보다 27%나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무려 63.4% 감축했다. aT가 올해 배정한 지역발전예산은 83억800만원으로, 지난해(226억7100만원)보다 143억6300만원을 줄였다.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국전력거래소도 예산을 27.5% 줄인 65억3800만원으로 세웠고 ▲우정사업정보센터(-33.5%) ▲방송통신전파진흥원(-31%) ▲국립전파연구원(-20.1%) ▲농식품공무원연구원

■올해 혁신도시 기관별 지역발전예산

기관명	예산	전년비
한전	1076997	1
한전KDN	47140	14.2
한전KPS	21937	11.8
콘텐츠진흥원	14767	47.3
인터넷진흥원	2859	22.5
사학연금	911	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69	0.7

(자료:전남도)

기관명	예산	전년비
농어촌공사	32742	-27
농수산식품유통공사	8308	-63.4
전력거래소	6538	-27.5
농촌경제연구원	1890	-0.7
해양경찰교육원	2501	-1.2
전파연구원	1900	-20.1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36	-3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927	-12.9
우정사업정보센터	728	-33.5
문화예술위원회	48	-11.1

(-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11.1%) ▲해양경찰교육원(-1.2%) ▲농촌경제연구원(-0.7%) 등도 지역발전예산을 감축했다.

한 해 예산이 90조원대인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발전예산은 제

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 올해 한전이 전남도에 제출한 지역발전 추진계획 예산은 1조769억9700만원으로, 지난해(1조666

억5100만원) 보다 0.96%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에 1조395억4000만원을 배정했고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운용 등 '지역산업 육성' 15건·346억9000만원 ▲에너지산업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지역인재 육성' 6건·12억7000만원 ▲주민지원·지역공헌 4건·1억6000만원 등 계획을 세웠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47.3%)이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22.5%), 한전KDN(14.2%), 한전KPS(1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0.7%) 등도 증액했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은 올해 2281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용 계획(2465명)보다 184명(7.4%) 적은 인원으로, 올해 이들 기관은 채용정원의 24%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징역 17년' 이명박 상고 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면서 대법원에서 이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우려 입국제한 확대하지 않는다

정부, 현 수준 유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 집중할 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제 입국제한 확대 조치를 논의하기보다는 신천지대구교회 등 일부 지역 집단감염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입국 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확대는 앞으로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

람의 입국은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는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온 내·외국인은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특별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입국제한을 확대하는 논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한다. 한정된 방역 자원 안에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야 하므로 지금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다. 코

로나19 사태 초기에는 해외에서의 감염병 유입을 막는 정책이 유효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는 입국제한 조치가 의미 없다"며 "지역사회 확산 및 전파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입국제한 조치 확대보다는 지역에서의 확진자 조기 진단과 치료에 방역대책의 무게를 싣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1년 환자 발생

이후 해외유입 사례로 확진된 환자는 없으며, 최근에 보고되는 환자는 대부분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된 사례"라며 "일부 베트남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신천지대구교회와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입국제한 조치가 '정치생전화' 되는 데 대해 부담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쯤 어떻게든 환자를 줄이고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화돼 선과 악을 나누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대 내 확진자 13명

"탄력적 부대 운영하라"

군 당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13명이라고 밝혔다.

한미국방 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대 활동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군내 확진자는 총 13명"이라며 "육군 10명, 공군 1명, 해군 1명, 해병 1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확진자는 11명이었지만, 이날 오후 2명이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2명은 경기 포천 육군 간부, 대구 육군 부대 군무원이다. 각각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 확진자 밀집 접촉이 아닌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부대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며 "정확한 내용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는 이달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 해군 기지에서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상병이 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충북 증평 육군 부대 대위, 충남 계룡대 공군 기생단에 파견된 공군 중위, 강원 속초 육군 병장, 경북 포항 해병대 대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 "대구 제어해 4주 내 안정화 시킬 것"

전국 확산 우려... 2주간 감기증상 대구시민 전수조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인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4주 안에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대구에서 감기증상을 보이는 시민 2만8천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카드도 꺼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에서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가 커서 이 지역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전파가 분명히 발생했고, 지역 감염 사태가 확산해 전국 확산이 매우 염려되는 단계"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주된 방향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즉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안정화 방안으로는 감기 증상 대구시민 전수조사가 제시됐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모리셔스 한국인 입국 보류 조처를 했다. 사진은 24일 새벽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격리 모습.

지난 23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 30여명의 입국이 보류됐다. 모리셔스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이런 조처를 했다. 사진은 24일 새벽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격리 모습.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예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선정리와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오행,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